

내 삶을 보다 좋은 길로 이끈 코로나19

2210 박민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가 세계에 퍼진지 어느덧 약 5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다. 나는 코로나로 인해 겨울방학 실습이 중단된 그때까지는 확진자도 적었고,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는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우리 생활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코로나로 인하여 내 삶의 변화가 생겼다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는 생활 습관들이 바뀐 점이다. 솔직히 예전에는 외출 후 손씻기를 생활화하지 않았고, 귀찮아서 거의 씻지 않았다. 씻는다고 해서 대충 비누로 거품을 내고 흐르는 물에 씻는 것이 다였다. 하지만 요즘에는 잠깐 밖에 나간 후 집에 들어와도, 무언가를 만져도 손을 깨끗하게 씻게 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또 학교에서는 얼굴 가리게 용으로 썼던 마스크들이 이제는 코로나로부터 감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쓰는 용도로 바뀌었다. 1~2월쯤에는 아, 답답한데 벗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쓰지 않고 나간 적들이 많았다. 하지만 요즘은 밖에 나갈 때 마스크가 없으면 불안하고 밖을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 같다. 이번 일로 인하여 학교에 가서 마스크를 쓰게 된다면 얼굴을 가리는 용으로 사용하여 낭비를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생활패턴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방학 중 학생들이 흔히 하는 행동들을 어린아이들 식으로 비유해보자면 다들 먹고, 자고, 싸는 행동을 한다고 한다. 나도 어린아이처럼 방학이니깐 너무 신나

서 늦게 자고, 12시에 일어나고, 밥 먹고, 싸고, 노는 것 만이 다였다. 하지만 이런 일상들도 학교를 안 가고 등교 일이 계속 연기되다 보니까 신나기는커녕 하루하루가 지루해지기 시작했다는 단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교육부에서는 현시점에서도 등교 개학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원격 교육을 통한 정규 수업으로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해소하자고 말했고 온라인 개학(수업)을 도입했다. 온라인 개학은 Zoom 어플을 이용해 화상수업을 하는 방식과 클래스룸 ,인터넷 강의(EBS)를 듣고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를 제한 시간 안에 제출하는 수업 방식 등이 있다. 이렇게 온라인 수업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방법과 장소만 달라졌을 뿐 학교 시간표에 맞춰 수업을 하게 된다. 처음에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내 얼굴을 보여주기도 싫었고, 귀찮았는데 막상 해보니 좋은 점들이 더 많다고 느꼈다. 예를 들어 항상 늦잠만 자던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도 먹고 스트레칭을 하다 보니까 주말에도 방학 때 보다 일찍 일어날 수 있는 습관이 생겼다. 또한 공부를하기 전에 아침밥을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은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기숙사에서조차 아침은 굶지 말고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세 번째 내가 하지 않았던 운동, 취미를 즐기고 가족과의 시간을 넉넉히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말했던 것처럼 나는 아이들이 하는 행동처럼 먹고, 자고, 싸는 것이 일상이었고, 나가기 귀찮아했다. 하지만 점차 개학이 연기되자 이런 반복적인 일상도 지루해지기 시작했다. 난 예전에 바다가 좋아? 산이 좋아?라고 물었을 때 항상 바다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좋아하지 않은 등산을 하자고 마음을 먹었고 정상에 올라가는 순간 산이 이렇게 아름다웠고, 시원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내가 해보지 않던 일들도 겪어보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둘 다 기숙사 생활을 해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다른 학생들 보다 부족했던 것 같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가족과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운동도 하고, 몰랐던 점들에 대해 알게 되니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만 끼친다고 생각되지는 않았다.

어쩌면 달라진 내 일상을 다른 사람들은 이미 실천했고, 즐기고 있는 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들에게 당연한 이 일상들은 나에게도 무엇보다도 값지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날 들이다. 코로나로 인해 바뀌어 버린 내 일상들은 더 나은 내 미래를 위해 부딪혀 보았던, 도전해 보았던 일들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인지 바뀌어버린 내 일상들은 내 마음에 들 만큼 크게 다가왔던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망가졌고, 지루하기만 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들은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지 않았을 때까지 하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무기력하고 하루하루가 그냥 재미없게 흘러가는 사람들에게 한 번쯤은 내가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도전해보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라고 말해주고 싶다. 또한 코로나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어쩌면 지난날에 대한 나의 반성의 시간이 될 수도 있으며, 나중으로 미뤘던 일들에 대한 시간 절약을 할 수도 있고 나에 대해 한 층 더 알아가는 시간 들을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